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1월 8일(목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12월 서비스PMI 최종 53.3, 전망 하회
- 2) 임시고용 인력 유지 추세, 주간실업수당 청구 감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러시아, 반년 만에 외환보유액 18% 감소
- 2) 영국, 기준금리 사상최저로 5년8개월째 동결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구글, 미국 검색시장 점유율 6년만에 최저, 야후 5년 고점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12월 서비스PMI 최종치 53.3 기록, 전망 하회

- 지난 6일 시장조사업체 마킷은 작년 12월 중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 최종치가 53.3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망치 53.7과 잠정치인 53.6을 하회하는 결과
- 또한,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한 12월 복합 PMI는 53.5를 기록해 전월대비 0.3p 하락을 기록
- 한편, 신규사업지수는 전월대비 하락, 2012년 9월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, 고용지수도 11월 중 53.8에서 51.5로 하락하여 작년 4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

2) 임시고용 인력 유지 추세, 주간실업수당 청구 감소

- 지난 8일 미 노동부는 미국의 지난주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9만4천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예상치 29만건은 상회한 결과지만, 2주 연속 전주대비 감소한 결과
-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이 결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기존 직원들을 유지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요인으로 작동, 또한 연말 연휴 기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며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도 고용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
- 한편, 실업수당 연속 수급 신청건수는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245만2천건으로 집계
 - 이는 시장 예상치인 236만건은 물론 전주 (235만3천건) 대비 상회한 결과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러시아, 반년 만에 외환보유액 18% 감소

- 지난 8일 주요 언론들은 러시아 외환보유액이 반년 만에 897억 달러 감소했다고 보도
 - 이는 미국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
 -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러시아는 이후 지난 10년 동안 외환보유액을 약 3배 증가시켰으므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즉시 고갈될 가능성은 저조할 것으로 보임
- 또한, 브라질, 인도, 인도네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터키의 외환보유액 역시 지난해 하반기 6% 감소한 바 있음
- 한편,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저유가와 미국이 올해 중반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에도 신흥국 통화의 불안전성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

2) 영국, 기준금리 사상최저로 5년8개월째 동결

- 지난 8일 BOE 통화정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현행 0.5%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
 - 이에 따라 영국기준금리는 지난 2009년 5월 0.5%p 낮춘 이후 현재까지의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
- 전문가들은 BOE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다수가 향후 몇개월 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
 - 블룸버그이코노믹스(BI)는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속도 둔화 현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, 적어도 오는 8월 이전까지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구글, 미국 검색시장 점유율 6년만에 최저, 야후 5년 고점

- o 지난 8일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2008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, 반면 야후는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
 -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75.2%수준, 이는 전년동기대비 4.1%p 하락, 반면 야후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0.4%로 전년동기대비 3.0%p 상승한 것으로 집계
- o 전문가들은 야후가 지난해 11월 중 미국 모질라사가 개발한 웹 검색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 초기 검색엔진이었던 구글을 대체한 데 힘입어 이 같은 시장 점유율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으며, 웹 분석업체인 스탯카운터 역시 모질라의 행보가 미국 검색 시장에 명백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
- o 한편, 주요 언론사들은 마리사 메이어 야후 최고경영자(CEO)가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 트래픽과 매출을 개선시키려 노력하는 가운데 야후의 점유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함